

가을 이쪽과 가을 저쪽

주성화



민족출판사

가을 이쪽과 겨울 저쪽

주성화

민족출판사

图书在版编目(CIP)数据

季节的方位：朝鲜文 / 朱成华著. —北京：民族出版社，2009. 4

ISBN 978-7-105-09999-3

I. 季… II. 朱… III. 诗歌—作品集—中国—当代—朝鲜语(中国少数民族语言) IV. I227

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(2009)第049044号

民族出版社出版发行

(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)

<http://www.mzcbs.com>

迪鑫印刷厂印刷

各地新华书店经销

2009年4月第1版 2009年4月北京第1次印刷

开本：880毫米×1230毫米 1/32 印张：3.625

字数：80千字 定价：10.00元

ISBN 978-7-105-09999-3/I · 2038(朝215)

朝文室电话：58130534；发行部电话：64211734

민족출판사 출판발행

(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)

<http://www.mzcbs.com>

2009년 4월 제1판 2009년 4월 북경 제1차 인쇄

절지: 880mm×1230mm 1/32 전지: 3.625

자수: 80천자 값: 10.00원

ISBN 978-7-105-09999-3/I·2038(조21.7)

편집실전화: 58130534 발행부전화: 64211734

가을 이쪽과 겨울 저쪽

저자의 말

세상 모든 사물에 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꽤나 숨찬 일이고 극히 둔한짓이겠다. 의의는 무감각중 흘러가고 그렇게 의의는 또 남아있는것이다. 내가 걸어온 자국자국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있는 공간이라 하겠다. 물질인것이다. 물질의 위(維)를 애써 확정하려 했으나 잠 깨고나면 영원한 수수께끼로 불확정만 남게 된다. 나는 이 느낌을 시라는 언어로 새기며 물질의 기호로 장식한다.

날씨가 차가와진다. 철없이 나이 먹고 그후에는 쉽게 세월을 타고 또 문득문득, 때때로 얻음을 선사받게 된다. 기억의 아름다움은 시간의 뒤모습처럼 어느 한때, 한순간은 영원한것이다.

2007년 9월 추석날
한국 한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
저 자

차 례

빈집의 꽃향기

- 인간 원리 — 2
- 작은 방 — 3
- 어떤 의미 — 4
- 생명 1 — 5
- 작은 집 — 6
- 생명 2 — 8
- 공간의 의미 — 10
- 령혼 — 11
- 잃어버린 꽃 — 12
- 향기같은 사랑 — 13
- 비여있는 아침거리 — 14
- 그리움 — 16
- 락엽 — 17
- 알고계십니까 — 18
- 인간수업 — 19

허무의 세계 — 20
빈집의 꽃향기 — 21

잊혀져가려는 그 사람

해탈 — 24
오늘의 시 — 25
가을 일주년 — 26
정(靜)의 아름다움 — 27
기후구도 — 28
생의 설계 — 30
어떤 말쑥 — 32
새 생명 — 33
눈물 — 34
어떤 하루 — 35
생명 — 36
바람 — 37
호수 — 38
사랑하고있는 까닭은 — 39

가을 이쪽과 겨울 저쪽

한줄기 생기 — 42
가을 수인 — 43
가을 인상 — 45

겨울나무 — 46
 가을비 — 48
 당신의 의미 — 49
 겨울 가고 — 50
 가을 이쪽과 겨울 저쪽 — 51
 밤이 깃을 내리면 — 53
 잃어버린 기도 — 54
 저녁과 밤 사이 — 55
 열매소묘 — 57
 생명단상 — 58
 일일사경 — 59
 열매의 성장 — 61
 초겨울 — 62
 추운 어느날 — 64
 겨울풍경 — 66
 겨울쥐 — 67

삶은 얼굴

나와 너 — 70
 사랑소묘 — 72
 현 마음 — 73
 너인 — 74
 꽃 — 75
 어떤 의미 1 — 77

어떤 의미 2 — 78
아름다운 사람 — 79
바다 장례 — 80
님은 누구의 시 같습니까? — 81
그리운이 — 82
고마움 — 83
근작 시초 — 84
새벽 1 — 87
따스한 햇빛 — 89

낮선 두루미와 어떤 의미

두루미 1 — 92
두루미 2 — 93
두루미 3 — 94
두루미 4 — 95
언약 — 96
해지는 소리 — 97
락엽이 떨어지던 날 — 98
황혼 — 99
꿈의 현실 — 100
겨울냄새 — 101
어느 겨울의 점에서 생각 고르며 — 102
숲속의 바람 — 103

빈집의 꽃향기

인간 원리

살면서
점-차
인간이 되다

불러주시면 피여난다는
춘수의 꽃같이 또는
님같아

점차 생명이 되면서
표류하는
사랑원리의 불가지(不可知)

진화는 달빛아래 꽃뿌리에
영킨
부식토 되고

일망무제
무제
무-제.

작은 방

겨울이 가듯 그렇게
쓸쓸하다
가을이 오듯 그렇게
상처 짙은 작은 방

작은 꽃잎 하나
사랑인듯 옮겨놓고
얼룩진 이해 늦가을 늦은 향기 가꾸다.

어떤 의미

어디라 할가?

나 가난한 꽃이 영그는
아픔의 소리
아름답다
비껴이는 진붉은 그 소리가

대안에 스미는 메아리는 짧은 생명을 정화하여
길게 늘이며 바람이나 빛이나 이슬처럼 발사되
여 흰것으로 환원했다가 무로 퇴색되어 소리의
자욱을 쓸어가다

어디라 할가!!

생명 1

배반하는 내 마음이 침묵의 눈빛에 닿아 고순도
향기로 피다

풍성한 너의 언어는 살밑 어두운 지방의 두께에
숨겨져 상처는 가을 얼굴처럼 연지곤지 곱게 길
들다

고운 이는 돌아나는 짙레꽃 눈빛의 기억으로
먼—먼 후날을 벚꽃처럼 후두—두 나르다가

새벽 변두리의 한줌 빛 모아 살구씨같은 생명을
엮어진 들판의 둥근 어깨의 호선을 타고 미끄
러지는 새알같은 바람에 박다.

작은 집

바다가 말라버린
밀바닥에서
사막이 집을 짓다

건 꼭
내가 잃어버린걸거야

창은 마구 사라지고
해빛은 굴절되고
하늘이 홀로 숨쉬며 늙어지다

봄날의 어린 살결의 냄새는 잉태되어
꽃의 아픔을 능청스레 건드리고
파도의 이어지는 형태는
자색 녹 짙은 쇠사슬의 고리

허공서
바다같은 뭔가 휘날리고있지 않을까
작은 집 외로움에 기대여

눈뿌리 아프게

지켜
보
다 - 1